

중동사태와 향후 전망

1.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지난 8월 2일 오전 8시, 이라크는 10만명의 병력과 350대의 전차를 이끌고 쿠웨이트를 침공, 약 6시간만에 쿠웨이트시를 점령하고, 거의 하루만에 유전지대를 포함한 쿠웨이트 전역을 제압했다. 이라크군은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립지대에도 병력을 증강,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침공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

美國은 소련과 협의하여 곧바로 이라크 제재에 나섰으며, EC도 로마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이라크 원유의 전면 수입금지 및 무기공급의 중단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였다. 한편 美國은 페르시아만에 항공모함을 증파하여 사우디에 위협이 가해질 경우에는 군사개입도 불사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의 혁명평의회(국회에 해당하는 기관)는 2일 하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쿠웨이트에서 혁명을 일으킨 잠정 자유정부의 요청에 따른 지원행동』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3일에는 단계적으로 병력을 철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쿠웨이트 임시정부가 「인민군」의 창설을 발표, 이라크군은 전원이 인민군에 지원병의 형태로서 참가, 실질적으로 주둔을 계속할 의도이다. 이라크에 지원을 요청한 쿠웨이트의 임시정권에 대해서는 현단계로서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없지만, 타국에 군사침공을 할 때 사용되는 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것이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후 3일간의 정세이다.

이라크가,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생산협정을 상회하는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원유증산을 직접 거명

하여 비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하순부터이다. 이것은 당초, 7월말 OPEC 제네바 총회의 전초전이라고 생각되었다. 우선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랍에미리트, 찰라비 이라크 석유장관은 6월 22일, 『아랍에미리트는 감산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로서 타 회원국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 석유장관은 『아랍에미리트는 어떠한 국가로부터의 위협이나 압력도 거부한다』고 반박하였다. 그 후,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자이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 자이드 대통령은 이라크의 입장에 이해를 나타낸 것으로 보도되었다.

7월 10~11일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이라크의 5개국 석유상이 회합을 가졌는데, 이라크는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요구하였다. ① 쿠웨이트는 상반기의 생산쿼터 150만 b/d 로 되돌아가, 그 수준까지 감산한다. ② 아랍에미리트는 생산협정에 복귀하고, 잠정쿼터량 109만5,000 b/d를 무시한 200만b/d 이상의 생산량을 쿠웨이트의 수준인 150만b/d선까지 감산한다. ③ 기타 국가의 생산쿼터는 현 상태로 하며 생산상한은 2,200만b/d정도에 머물게 한다.

그러나, 쿠웨이트는 하반기에 쿼터 증량을 요구할 의향이였으며, 이라크가 OPEC의 리더쉽을 취하는 것에 반발, 명확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은 7월 17일 혁명기념일 연설에

서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로 인한 석유가격 붕괴는 이라크를 배후에서 단점으로 찌르는 것과 같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말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 군사적 행동에 호소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한편, 같은날 이라크는 쿠웨이트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켰으며, 쿠웨이트도 하루 전인 16일부터 비상경계체제를 발동하고 있었다.

18일, 아지즈 이라크 외무장관은 아랍연맹에 서한을 발송하여 다음 셋째항목(③)의 주장을 분명히 하였다.

①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OPEC 생산협정 무시 및 증산에 따른 석유가격 하락의 손해는 아랍제국 전체에 5,000억달러, 이라크만으로 890억 달러에 달한다.

②쿠웨이트는 국경부근의 이라크·루메일라 유전으로부터 석유를 도굴하고 있으며, 그 손해는 24억달러에 달한다.

③쿠웨이트는 국경부근의 이라크 영내에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침략행위를 행하고 있다.

④이라크는 쿠웨이트에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쿠웨이트의 자비르 토후는 18일에 긴급 국민평의회를 소집하여, 『이라크는 이웃의 권리와 아랍의 우애를 무시하고 있다. 쿠웨이트는 위협과 폭력의 정책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동시에 사바 외무장관등 3인을 아랍연맹 제국에 파견,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세는 점차 긴박감을 더해갔다. OPEC 총회 전날인 25일 이라크주재 및 페르시아만 서방측 외교 소식통은 이라크가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병력을 증가, 전차 200대 이상이 국경을 따라 배치되었으며 2개 기갑사단이 임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하였다. 바그다드로 떠났던 여행자의 말로는 차량 3,000대, 병력 3만명이 국경으로 향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이라크가 배치하고 있는 병력은 3만명에 달하며, 이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있는 미해군 함정 7척이 경계태세에 돌입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미국방부 당국은 미중동합대의 일부가 이라크군의 움직임에 맞춰 아랍에미리트군과 임시 군사훈련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에서 美國에 요청한 것으로 이라크에 대한 시위 행동이었다.

후세인 요르단 국왕은 23일 이집트를 방문,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라

크,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분규 조정에 대해 협의하였다.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은 24일 상오 바그다드를 방문하여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과 회담하였다. 후세인 대통령은 이라크가 쿠웨이트에 대해 무력행동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무바라크 대통령은 같은날 하오 쿠웨이트로 날아가, 이같은 보증을 자비르 토후에게 전달하였다. 귀국한 무바라크 대통령은 25일 이라크와 쿠웨이트가 사태해결을 위해 직접 회담을 갖게 되었다고 공표하였다. 또한 양국에 의한 鬪戰 및 메스컴의 비난 캠페인 등은 26일부터 중지될 것이라고 하여, 사태진정을 전망하였다. 26일 메기드 이집트 외무장관은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직접 회담은 29, 30의 양일간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이루어지며 쿠웨이트에서는 사우드 황태자(수상)가 참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바그다드의 AP통신은 페르시아만 주재 외교관의 말을 빌어 이라크는 26일에도 철수를 개시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정세속에서 제87회 OPEC 정례총회가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25일의 각료 감시위원회에서는 OPEC 원유의 최저 참고가격을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3달러 인상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한 이라크의 찰라비 석유장관은 『기준이 되는 최저가격은 25달러/배럴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등의 중남미 제국이 신증론을 전개, 20~25달러 사이에서 줄다리가 전개되었지만 이라크의 입장을 배려하여 21달러로 낙착되었다.

26일, 총회가 개최되었다. 최초의 전체회의에서는, 이라크는 찰라비 석유장관이 25달러를 강조, 정식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각국간의 절충으로 원유가격이 더욱 상승하면 차기 총회에서 다시 조정한다는 조건으로 이라크의 체면을 세워주어 타협이 성립되었다. 27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최저 참고가격 21달러, 하반기의 생산상한 2,249만1,000b/d를 결정하였다. 이것은 아랍에미리트의 생산쿼터량을 109만5,000b/d에서 150만b/d로 40만5,000b/d 증량하고, 그 분량만큼을 상반기의 생산상한 22,208만b/d에 가산한 것이다. 기타 국가의 생산쿼터는 변동이 없었으며 쿠웨이트는 쿼터증량을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라하여 OPEC총회 자체는 일단 평온하게 끝났다.

지난 7월 31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에서 열린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직접 회담에 쿠웨이트는 사아드 황태자, 이라크는 이브라힘 혁명평의회 부의장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했다. 그러나 이라크는 제다에서의 회담을 형식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실질적인 회담은 바그다드에서 개최하자고 주장해 왔다. 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없이 8월 1일 끝났다. 쿠웨이트 대표단은 같은 날 제다를 떠나기 전에 『직접교섭의 형태로 대화를 계속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고, 사아드 황태자도 『모든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양국의 어느 곳에서나 회담, 교섭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이라크가 주장하는 바그다드에서의 회담을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다.

2. 쿠웨이트 침공의 배경

(1) 이라크

이라크가 왜 쿠웨이트를 침공했는가, 그리고 미국이 왜 이 문제를 중시하고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후, 동서간의 긴장완화가 중동에서 조성되기 시작한 미묘한 힘의 공백, 석유수급의 완화에 따른 유가하락등 꽤 복잡한 배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라크는, 그 주위를 이란, 터어키, 시리아,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이 둘러싸고 있고, 요르단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과 마주보고 있는 위치에 있다. 결국 백수십만의 병력과 1만4천대의 전차에 둘러싸여 있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중동 최대의 군사력(병력 100만, 전차 5,500대, 야포 3,700문)을 보유하고 있다.

(2) 이란·이라크의 관계

이란·이라크 전쟁의 종식에 따라, 이라크가 보유하고 있는 中東 최대의 군사력이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되었다. 100만의 대군은 이제 이란과 대치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나게 된 배경에는 전쟁에 의해 이란 경제가 파탄해지고, 이란 국내의 경제재건이 필요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된다. 종전

후, 평화교섭이 일시적으로 결렬되었던 적도 있으나 얼마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재로 외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란·이라크 관계는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3) 시리아

아랍·바스당(공산당)의 주도권 다툼과 아랍세계의 패권을 겨루는 가운데 시리아는 40만 병력과 전차 4,000대를 거느린 이라크의 강적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구미와의 관계도 유지해온 데 반해, 시리아는 소련, 동구로부터 군사·경제 원조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소련, 동구에서의 경제원조 중단으로 정책의 전환이 부득이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지속하고, 이집트와 국교를 회복, 구미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현재로서는 이라크를 침공할 여유는 없다.

(4) 터어키

유프라테스 강물의 이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기는 하나, 터어키와는 가까운 시일내에 무력분쟁으로 발전할 것 같은 관계는 아니다.

(5)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병력규모가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그 기술 수준이 대단히 높아, 이라크로서는 군사적인 의미에서 최대의 위협이 되고 있다. '81년에는 바그다드 근교에 건설중인 원자로가 이스라엘기의 폭격을 받은 사건도 있었다.

최근 이라크는 중거리 미사일에 장착하는 화학탄두의 개발에 성공한 모양이며, 이스라엘과 이라크 사이에 무기개발을 둘러싸고 대단한 논쟁이 있었다. 『이스라엘이 이라크와 아랍제국을 공격할 경우 이라크는 이스라엘의 절반을 화학무기로 파괴하겠다』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이 위협했으며, 한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측은 『이스라엘에는 이라크의 공격에 대해 몇번이라도 반격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고, 요르단에 이라크군이 침공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취지의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가스마스크의 배포를 시작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과 이라크 쌍방이 대량 살륙무기

를 보유했다는 점에서 양국간에는 말하자면 상호억제의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차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6) 사우디아라비아

동서의 긴장완화는 동서독의 통합과 남북한의 대화를 불러왔으며, 中東에 있어서는 남북예멘의 통합이 실현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예멘의 통합에 호의적은 아니고 저지를 기도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예멘은 통합되었다. 이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정은 북의 이라크, 서의 이스라엘과 더불어 남의 예멘으로 부터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

(7)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예전부터 의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86년에 토후에 의해 의회는 해산된 상태이다. 최근 이 의회를 재개함과 함께, 원래의 의원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집회가 금지되어 있어, 그 활동은 비합법화되어 있다. 토후는 국민평의회 내지는 잠정의회로 불려지는 회의의 개최에 마지못해 응하고 있으며, 민주화를 표방하는 본래의 의원들이 입후보 할 수 없도록 체포하는 등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선거가 실시되기는 했으나 민주화 요구세력이 선거를 보이콧했기 때문에 선거는 토후 지지세력에 대한 사실상의 신임 투표와 같은 것으로 되고 말았다.

쿠웨이트는 인구 약 200만, 그중 쿠웨이트인은 40% 정도로, 기타는 외국인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사바하家에 의한 지배가 1756년 이후 계속되고 있으나, 오스만터어키 시대, 이라크의 바스라 주지사下에서 「사령관」의 칭호를 얻었던 적이 있고, 그 후 터어키 합병을 우려하여 영국의 보호국으로 떠났다. 그래서 '61년의 독립시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3. 이라크와 美國의 목적

(1) 이라크의 목적

이라크의 眞意는 추측하기 어려우나, 상술한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도, 이라크가 즉시 군비의 경감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머어마한 군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00만의 병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들며, 인구 1,780만의 이라크로서는 설령 막대한 석유收入이 있다 하더라도 대단히 큰 부담이다. 이란·이라크 전쟁의 결과 이라크에는 650억 달러 내지 800억 달러에 달하는 소위 대외채무가 남게 되었다.

이 채무중에서 300억~400억 달러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채무이고, 이라크로서는 아랍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란과 싸웠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아랍제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며, 채무를 말소시켜 주기 바란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석유收入에 의존하고 있는 이라크는 당연히 석유가격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채무문제의 해결과, 군비에 필요한 비용의 재정부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최근 석유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공급과잉이 논의되어 왔다. OPEC는 각국에 석유생산량을 할당, 참가가격을 규정하고 있는 공급카르텔이다. 그러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등은 생산쿼터를 상당히 상회하는 생산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이라크로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더욱이 쿠웨이트의 독립문제, 바스당의 입장에서 사바하가의 지배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겹쳐, 상술한 바와 같은 간극을 없애기 위해 쿠웨이트 침공이 결정된 것이다.

(2) 美國의 목적

美國은 왜 이와 같이 멀리 떨어진 中東지역의 문제를 중요시 하며, 대규모의 대응을 취하는 것일까. 미국은 최근 석유수요의 약 50%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기 때문에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라크 문제는 더욱 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라크는 생물독소무기와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핵무

기의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미·소등 제한된 나라에 이러한 무기의 생산과 보유를 한정하고, 확산을 방지토록 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래 꾸준히 구축되어 온 軍備관리의 틀을 逸脫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침공하고, 더욱이 이를 합병함으로써 유엔헌장 등 국제법에 정한 규정도 위반했다.

또한, OPEC내에서 생산제한 및 가격유지를 주장하여 자유무역 체제에도 도전하고 있다.

요컨대 美國의 입장으로는, 이라크의 행동은 동구권이 시장경제를 도입, 민주화함에 따라 동서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도전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분명히 美國은 석유공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응 이상의 행동으로 나오고 있다.

4. 쿠웨이트 영유권 문제

이번에 쿠웨이트를 본격적으로 침공하고 전면적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영유할 의도가 있었던가. 적어도 위성국으로 만들어 실질적으로 지배할 것으로 보여진다.

쿠웨이트는 아랍 유목민족이 아라비아 반도의 내륙으로 부터 이주하여 현재의 땅에 정착한 것이 18세기이다. 그 중에서 현 토후인 사바가가 나타나 지배권을 장악하고, 천연의 항구인 쿠웨이트만을 통해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다. 18세기 후반 내륙의 와하브 왕국의 압박을 받아 英國 동인도 회사에 보호를 요청, 동사에 기지를 제공했다. 또한 한때 터어키를 종주국으로 하여 바스라주 지사의 지배하에 있던 적이 있다. 이것이 이라크가 쿠웨이트의 영유를 주장하는 이유로 되어 있다. 1899년에 英國과의 조약을 체결하고 정식으로 피보호국으로 되었다.

이라크는 16세기부터 오스만·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어키가 독일측이었기 때문에 英國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1920년에 英國의 신탁통치하에서 하심家の 파이잘(요르단 국왕과 형제)을 왕위에 앉혀 이라크 왕국이 건설되었다. 1930년에는 英國과 조약을 체결하고, 英國과의 동맹관계 유지, 英國의 공군기지 보유, 영국군의 자유통행권 등을 조건으로

이라크의 독립이 인정되었다. 이때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영유를 요구하였으나 英國은 이라크가 페르시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쿠웨이트 지역을 이라크에 제공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1961년 6월 쿠웨이트는 英國과 협정을 통하여 독립했으며 이때도 이라크는 쿠웨이트의 영유를 주장했다. 이라크는 페르시아만의 출구에 있는 쿠웨이트령 부비안島, 와르바島의 양도를 요구하고 무력을 행사할 태도를 보였으나, 英國과 아랍연맹이 반대하여 쿠웨이트를 지원, 이라크가 양보하였다. 1963년 2월 바스黨이 정권을 잡자, 쿠웨이트는 이라크에 8,500만달러의 자금을 공여하고 독립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국경선이 확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번에도 이라크는 부비안島, 와르바島의 사용권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위가 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英國이 전략적 배려에서 쿠웨이트에 이라크를 봉쇄시키는 것 같은 형태로 하여 국경선도 결정하지 않았으며(결정시키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후유증이 오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분쟁의 밑바닥에는 英國의 식민지배정책의 잔재 같은 것이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5. 후세인 대통령의 정치수법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의 개성과 그 정치수법이 이번 쿠웨이트 침공의 큰 요인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히틀러에 비유하는 견해도 있다. 그는 1937년 北이라크의 티그리트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이 없었고, 군인이었던 외숙부 할리라라 타루파 밑에서 자랐다. 이 숙부는 1941년 英國의 괴뢰정권이었던 이라크왕가 전복계획을 지원했다가 실패, 5년간 투옥되었다. 숙부의 투옥으로 고생을 한 후세인은 이라크 뿐만 아니라 아랍세계 전체로부터 외국세력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민족적 정열을 갖게 되었다.

1956년 바스당의 당원으로 국왕 파이잘 2세에 대한 쿠데타에 참가하였으나 쿠데타가 실패하고 말았다. 1959년 22세때 왕정을 타도하고 최초의 공화국 정권을 수립한 카셈대장의 암살을 바스당으로부터 명령받았으나 실패하였다. 이때 친구가 다리에 권총을 맞았으며,

후세인이 칼로 친구의 다리에서 권총탄알을 빼내고 베드윈(유목민)으로 분장하고 시리아로 도망했던 무용담은 유명하다. 당내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냈으며, 친구와도 적으로 돌아서면 가차없이 처형하였기 때문에 「바그다드의 도살자」라고 불리게 되었다.

고독하고 거만하다는 평이 있으며 偏執的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기주변의 안전에는 특히 경계심이 강하며 군부와 당을 막론하고 정기적으로 숙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도 나가지 않으며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으므로 인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에서는 공포정치를 하고 비밀경찰 밀고 심야연행 비밀처형으로 공포감을 주고 있으며 분명하게 비판하는 자는 사형이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인권옹호단체)의 견해로는 월평균 10~20건의 교수형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회포착에 기민하고 냉정한 이기주의자라는 견해도 있다. 아랍제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을 대변하여 때때로 이스라엘에 강경발언을 반복해 왔다. 이란 혁명이 시작되자 대통령 취임한 후 1년 밖에 안됐는데도 샤프트 알 아랍수로의 국경선을 옛날의 위치로 돌린다는 국내적으로는 페르시아만으로의 출구를 확대한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이란에 선전포고를 했다. 그런 다음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제국 등 왕정국가에 대한 이란의 혁명수출과 호메이니에 대한 공포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戰費를 받아내고 8년간 전쟁을 벌여 오늘의 강대한 군사국가로 성장하였다.

이번에도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증산과 원유가격에 대한 OPEC 제국의 불만을 대변하여 양국에 실력으로 감산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여 세계의 이목을 OPEC 총회의 원유가격 문제로 끌어들이려 착착 쿠웨이트 침공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거기에는 미·소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中東에 대한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틀림없다. 초강대국의 공백을 이용하여 전격작전을 벌였던 것이다.

각국에 대해, 이라크를 봉쇄하는 포위망을 경제, 군사의 양면에서 조성하도록 호소하고, 수출입 금지라고 하는 경제제재와 다국적군에 의한 해상봉쇄를 실시하고,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병력을 파견하는 행동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6. 향후전망

이와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라크측도 미국측도 용이하게 손을 뺄수가 없다. 그렇다면 戰線은 확대될 것인가.

현재 이란, 터어키, 시리아, 이스라엘이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병력은 압도적으로 이라크측이 많고, 해군과 공군력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측이 우위에 있다.

이 때문에 이라크가 수십만의 육군병력을 투입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군을 합쳐 10만에 못미치는 전력을 격파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진격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후 사막에 펼쳐져 있는 보급루트는 함재기나 사우디아라비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美國 등의 항공기의 좋은 공격목표가 되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영내로 이라크군이 움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미군이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국경을 넘어 이라크군과 싸울 경우를 가상해 보면, 우세한 항공병력의 지원하에, 이라크군의 전차부대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알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섭씨 50도에 달하는 사막지대를 800km~1,000km나 진격하지 않으면 바그다드에 도달할 수 없다. 이라크는 국경을 침범하면 화학무기를 사용할 것을 천명하고 있어, 방독면을 착용한 작전이 된다. 더욱이 미국으로부터의 수송거리는 멀고, 10만~30만의 병력을 집결시키는 만큼 수개월이 소요될 것이다. 또한 적자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재정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떨지가 의심스럽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쌍방 모두 육군이 越境하여 공격을 강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태는 이미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이라크에 경제봉쇄 조치가 취해져 사실상 대단한 타격을 준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합병함에 따라 현재, 세계 원유 생산 능력의 7%를 장악하고 있다. 이 7%라고 하는 규모는 다른 산유국이 어느 정도의 증산을 실시하고, 소비국이 약간의 에너지절약을 실시함에 따라 커버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전지대를

이라크가 점령하면 이라크는 세계 원유생산의 15% 정도를 수중에 넣게 되어 선진공업제국의 사활문제로 발전한다.

만약, 이라크가 사활의 문제를 내놓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도 봉쇄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세계에 사활의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같은 상황 가운데서, 아랍 수뇌회담에서 이집트, 시리아, 모로코 등이 아랍 연합군의 파견을 결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집트군과 시리아군이 이라크에 대항하는 행동을 취하면, 지상전력에 있어서도 이라크는 열세

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얘기한 힘의 간극이 메워지고, 이라크는 전쟁방어에 치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이집트와 모로코는 8월 11일 수천의 병력을 사우디아라비아에 파병했다. 시리아 등이 본격적으로 병력을 이라크와 대치시키면 균형을 깨진다. 따라서 아랍연맹군이 대규모로 개입을 할 것인가,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소규모의 병력 파견에 그치고 사태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화해의 끈을 찾을 것인가가 초점이다.♣

성유안경

중동사태 戰費분담금



사막엔 물이 필요할텐데... 「한국수해민」